

# 세계 예술만화 100년사 자료(2부): 1927년~1944년

<100 ans de BD> Pascal Pillecand, Addition Atlas, 1996

파스칼 필칸드(Pascal Pillecand)

박향순 역

(대전 대덕대학 애니메이션과 교수)

## I. 서론

### II. 초기 만화사 분석(1927년~1944년)

1. 1927년 새로운 변화
2. 1928년 최초의 외국 모험
3. 1929년 경제 공황 발생
4. 1928년 영화와 창조
5. 1929년 독자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6. 1930-1939 근대화된 만화
7. 1930년 만화에서의 도피
8. 1931년 건달과 인기있는 미인 등의 사진
9. 충격적인 형사 디 트레이시
10. 실제로 확실히 영웅, 미키
11. 1930년 영화와 만화의 영감
12. 1931년 시리즈물 세상
13. 1932년 경제 공황
14. 1933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원숭이 얼굴을 한 악당
15. 1934년 모든 분야에서의 모험
16. 1935년 고전주의 시대
17. 1934년 익살스런 만화의 등장
18. 1935년 개그 만화
19. 1936년 시리즈물의 축 형성
20. 1937년 <코믹 형사 넘버 1>
21. 1936년 현실적인 시리즈물의 발간
22. 1937년 유럽 만화가들의 분산
23. 1938년 남성적이고 근육질의 세상
24. 1939년 슈퍼 영웅, 슈퍼 코믹
25. 1938년 프랑스 벨기에 학파의 발전
26. 1939년 다니엘 라보른 창간
27. 1940-1949 만화가들이 동원되다
28. 1940년 만화 속 영웅들과의 동일시
29. 1941년 슈퍼 영웅은 전쟁 시작을 준비한다
30. 1940년 다수의 시리즈물 탄생
31. 1941년 화려한 시리즈물
32. 1942년 전쟁중인 유럽
33. 1943년 만화에 대한 통상금지
34. 1942년 사립 탐정의 이야기
35. 1943년 독창적인 이야기의 등장
36. 1944년 에너지가 발산된다.

### III. 결론

## I. 서론

만화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가장 집약적인 형태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해야만 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인간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한다. 이른바 “오감(五感)”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채널은 청각(聽覺) 채널로서 음성(音聲)적인 언어이다. 음성언어(말)은 인간의 의사를 가장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다. 두번째로 많이 쓰이는 채널은 시각(視覺) 채널이다. 시각 채널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글’이며 그 다음으로 그림, 몸짓, 표정, 시선(視線) 등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각채널을 통해서 지각된다. 이 밖에도 미각, 후각, 촉각 등이 있는데, 이것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청각적인 언어(말)과 시각적인 언어(글+그림)이다. 인간은 글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그림을 그렸다. 선사시대의 프레스코 동굴벽화가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인간은 선사시대(先史時代)를 뒤로 하고 비로소 역사시대(歷史時代)로 접어들게 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단순한 무리를 지어 사는 생활에서 부족체제를 지나 국가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활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문자(文字)의 발명에 이어 종이의 발명,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은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혁명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했다.

여기서 글과 그림의 결합으로 인해 만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동굴벽화의 소박하면서도 단순한 그림을 보면서 거기서 만화의 초기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단순히 묘사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폄하(貶下)하기도 한다. 이것이 만화의 기원이 되었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만화는 이미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하고 가장 거부감 없는 대중매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최초의 만화는 기원전 1360년경의 이집트 투탕카멘 왕을 비판하는 그림이다. 이것은 정치만화로써, 정치만화가 만화 장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임을 나타내준다. 정치만화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이 만든 집단의 크기가 커지고, 그것이 국가라는 형태를 지니게 되면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집단이 양분되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들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나서부터, 극소수의 지배계층을 비판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경제공황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급박한 사회·경제적 흐름은 문화·예술분야에도 영향을 미쳤고, 만화 또한 그 흐름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급박한 사회 흐름은 만화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장르의 만화를 탄생시켰고, 만화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초기의 만화의 역사를 시대상황과 더불어 살펴보자.

## II. 초기 만화사 분석(1927년~1944년)

### 1. 1927년 새로운 변화

비엔나에서는 재판소에 화재가 발생했고, 파리에서는 이 기간에 광란의 해라고 이름붙은 것에 걸맞은 창작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위스키를 마시고, 몽빠르나스의 나이트 클럽 안에서 끌어내진 예술가들을 엿보는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적인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노출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두가 움직이고, 악몽에서 벗어난다. 그것이 전쟁 전의 일이다. 랭베르프가 대서양을 횡단한 것으로 만화 속에서만 실행되는 소년들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세계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 가수가 미국에서 나오고 관객들을 광분시킨다.

### 2. 1928년 최초의 외국 모험

어른들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미국 출판사들의 과녁이 되고 팀 테일러스 턱은 용감한 젊은 소년을 영웅으로 만든 <코믹> 모험의 최초의 예로 등장한다. 뉴욕 일간지에 리망 영의 <팀 테일러스 턱>이 출판되고, 팀과 스프드 이 두 명의 어른과 검은 표범 광은 노예상인을 공격하고, 폴 클락 중사가 이끄는 군대식 구조, 상아 파르투이를 가진 그들은 코끼리 사냥꾼들을 공격하면서 흑인 매매에 반대하고 노예상인들과 싸운다. 이로 인해 이국 취향에 기반을 둔 이 모험들을 재생지에 그려 우리에게 아프리카를 전달해준다. 타잔 현상을 이외에도 <코믹 정글>에 대해 얼마나 대중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내는지 일반적인 예상에 일치한다.

다음해에 굉장한 성공을 이룬 정글을 배경으로 한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잡지들 무리 모두가 상업화되면서 정글의 모험과 정글 조가 넘어오면서 정글 코믹부터 정글 짐까지 제목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한다. 프랑스에서 팀 테일러스 턱은 라울과 가스통, 리차드 르 데메레호 또는 프에드와 팀과 같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발행되고, 미국에서처럼 이 시리즈물은 유럽에서 모험을 갈망하는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선망받게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르 코리에 데이 피콜리>>지에 브루노 앙골르파에 의해 <마르미톤의 모험>이 처음 시작된다. 마르미톤은 끊임없이 그의 운명을 저주하는 빨간 눈동자의 군인이고 항상 반란과 벌을 받는 그는 감옥에서 밤과 낮을 투덜거리며 지내게 된다.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그려졌던 그림을 배경으로 혈색좋은 용모와 생기있는 피부를 가진 마르미톤은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반체제주의자와 불평가의 정신을 숨기며 사는데 (...) 파시스트 경향이 없는 것. 이것이 대중에서 성공하는 비결일까? 이 시리즈물은 1942년에 금지되었다가, 1970-80년대에 재발행되었다.

### 3. 1929년 경제공황 발생

수만의 사람들도 더 이상 도피할 수 없을 만큼 생활이 공황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만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해이다. 뉴욕 《미러》지는 1918년에 이미 영화화된 에드가 라이스 부루푸의 소설을 만화화한 <알프스의 타잔>을 처음으로 채택했으며 이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였다. 처음의 만화는 UFS지에 1929년에 고용된 하롤드 포스터였다.

그는 세심하게 공들인 그림으로 타는 듯한 세상을 그렸다. 그러나 만화는 파노라마 효과와 대사를 쓰는 등근 테의 잘못이라는 조금은 관례적이고 정지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뒤를 이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분느 호가트이다. 그는 1937년에 포스터의 뒤를 이어 타잔을 그렸고, 정열과 삶이라는 시리즈물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만화의 고전적인 대가 중의 하나로 새로운 시각적인 효과는 잠수, 이동촬영, 파노라마 등이 배경으로 발견되고 창조되어 그것이 거대한 대중적인 성공을 불러일으켰다.

타잔은 모든 나라에서 만화의 만화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인물이며 모든 장르의 패러디와 모방화, 에피소드, 시나리오를 새로이 내보였다. 만화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루스 마닝이 애쓰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실망하게 되고, 명백히 항복해야만 했다. 만화의 영역에는 유행이 있어 이 해에는 공황 속에서 우울한 이야기가 유명해진다. 이 해에는 미국이 그들의 탄생을 알고있던 것보다도 더 우울한 경제적인 재해가 시작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P. F. 나우랭의 소설이 성공한 후에 디 말킨스에 의해 영화화된 것으로 『2429년의 벅 로저』라는 공상과학소설을 만화로 《쿠리에 예방시빌》지에 1월 7일부터 발간한다.

같은 해에 존 H. 스트리에벨의 ‘쇼걸’을 만화로 다시 그린 험 휘세에 의해 디스 두간이 출발한다. 이 시리즈물은 드러내려고 애쓰는 초창기의 배우의 모험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 시리즈물은 경제 침체에 수많은 여성의 가슴에 꿈을 불어넣었다.

### 3. 1928년 영화와 창조

조 파루키는 늘씬한 몸매와 만족할 만큼 순진함이 있는 매력있는 복서이다. 험 휘세에 의해 창조된 스포츠 만화는 미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다.

단테 퀸테로에 의해 그려진 이 시리즈물 <영웅 파토조투>는 영국에서 태어나 근대의 안락함과 문화를 발견하고 마을에 정착해 머리위에 빨간 깃털을 꽂고 과시하는 인도인이다.

빛과 움직임의 일치를 창조한 미국의 무용가 루이 필러가 죽는다.

세실 B. 밀과 멜리에스의 뒤를 이은 칼 트레이어는 잔 다르크를 영화화 하였고 가전제품가게와 우체국에서는 75달러에 텔레비전을 팔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텔레비전을 살 수 있었다.

수만의 얼굴 에스파냐의 부뉴엘과 달리는 <안달루시아의 개>를 그들의 악몽을 결합시켜서 영화로 만든 반면에 라벨은 볼레로를 작곡한다.

## 5. 1929년 독자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미국에서 10월 21, 월 스트리트에서는 크라쉬 부르시예를 알았다. 자유 경제는 미쳐갔고 끔찍한 공황이 들이닥쳐 최초의 에피소드 구상한 헤르게는 <소련에 간 토티>을 벨기에의 《르 삐띠 뱅티엠프》지에 발표한다. 삐삐이는 세가의 <팀블 테아트르>에 출현해 시리즈물에서 유명해지고, 올리브와 독자들은 그만을 기다린다.

## 6. 1930-1939 근대화된 만화

제9의 예술과 함께 예술의 요람기가 끝났다. 세상 곳곳에서는 기술과 매스컴매체와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전쟁 전의 이 10년을 만화의 세계적인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간주하게 된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시리즈물들은 다양해졌고, 만화가 효과와 질적으로 점점 더 발전되어 영감을 얻은 만화가들은 눈에 띄는 만화를 세심하게 준비한다. 게다가 만화에 가까운 분야인 모험소설, 영화, 동물 그림은 흥분되고 성공적인 단계로 그리고 미키도 확실하게 만화에 한발을 들여놓았고 만화 분야에 변화되어 들어왔다.

새로운 스타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모험, 서스펜스, 미스터리, 공포물 등이 생겨났다. 사회풍자물과 유머 시리즈물들은 더욱더 발전되어갔다. 거의 영원히 나타나는 만화 속 주인공들은 이 시대 동안에 같이 볼 수 있었다. ‘만드라케’, ‘유령’, ‘슈퍼맨’, ‘배트맨’ 등등이 있었다.

새로운 이 시장 주변에 목표를 다양화하고 확대하면서 만화의 특성상 어른들과 어린이, 젊은 소녀들과 어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편집장들은 그 구조를 구체화했다. 눈에 띄는 이러한 현상들은 미국에서 늘어나면서 <코믹 북>이 탄생하게 된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인 미키의 출현은 어린이 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일으켰다.

미국인들이 충격은 받은 반면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코믹을 발견하고 그들은 프랑스-벨기에라는 학파를 만들어냈다. 헤르게는 『툰틴』, 『퀴과 플뤼케』, 『조』, 『제트와 조코』를 출간하여 조금 나중에 교대하는 재능있는 만화가들은 팀을 연합하자고 선동한다. 결국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러한 만화들의 개화에 직면에서 오늘날 가장 잘 팔리고 인기있는 것들에 깜짝 놀란 독자들을 단지 즐기만 하면 되었다.

## 7. 1930년 만화에서의 도피

경제공황은 조금 더 강하게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 1920년대에 도취되었던 감정들은 멀리 사라지고 시민들은 조금씩 경제의 쇠퇴와 실업을 느끼기 시작한다. 1930년대의 9월 공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급발의 새로운 만화 주인공이 출현한다. 그것이 ‘블론디’였다.

식 영에 의해 그려진 블론디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만화가 되었다. 세계에서 1,800개의 신문에 재판되어 이 시리즈물은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33년 매혹적인 여성과 블론디가 결혼할 때까지 그 성장세는 계속되었다. 블론디의 부인은 가정 살림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였고 그녀보다 어리고 짐작치만은 무분별하고 능력없고 방탕한 그녀의 남편 덕우드 봄스티드에게 지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똥똥한 시어머니와 항상 투덜대는 시아버지 사이에서 그녀의 민감한 매력과 다양함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하루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 블론디는 항상 바쁘다. 블론디는 우아함, 원기왕성함과 융화될 수 없는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매일매일의 근심으로 수척해져가고 그들의 침착함을 지키지만 점점 나빠지는 독자들이 무엇인가에 정신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 8. 1931년 건달과 인기있는 미인 등의 사진

금지가 도둑 집단과 암거래의 증가를 불러들였다. 건달은 영화와 <코믹> 그리고 문학에 영향을 주어 막스 플레이세의 동물만화 속의 ‘베티 붐’은 바라는 만큼 영악하고 말괄량이이며 손님을 끄는 여자이다. 그녀는 그 시대에 살았던 가수 ‘헬렌 칸’이라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코믹>물 속에 등장한 짧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만화가 버드쿠히남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싫증을 주었고, 베티 붐은 할리우드의 예쁜 여배우의 살아있는 모습을 만화 속에서 가지게 되었다. 그림은 사람들에게 친숙했고 그러나 이 시리즈물의 전체는 동물 그림에서 표현하는 특질과 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인스타의 일상이라는 짧은 경력을 가지게 되었다.

## 9. 충격적인 형사 딕 트레이시

알 카포네는 신문 중의 하나가 되었고, 경찰의 유효성에 제한이 있었다. 미국인들은 현실적인 영웅들이 필요했다. 딕 트레이시 만화는 도둑집단과 싸우는 덕망있고 집요한 형사를 1930년에 그렸다. 냉정하고 근육질의 잘생긴 남자 작은 워너 사의 성공한 배우 제임스 카네이를 닮았다. 이 만화는 체스터 굴드가 그렸고, 다음에는 시카고 트리뷴 조합에서 그렸다. 딕 트레이시는 그 시대의 조잡한 3면 기사와 경찰에서 영감을 얻은 최초의 만화가 되었다.

## 10. 실제적으로 확실한 영웅, 미키

1930년 미키는 만화로 동물그림으로 세상에서 나왔다. 그것은 미국의 성공과 조합의 심볼로 빠르게 굳어졌다. 디즈니 스튜디오에 의해 창조된 이 유명한 생쥐는 따뜻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만족함을 주는 힘이 있는 작은 부르주아의 모델이다. 이것이 만화와 동물 만화 사이에서 가장 근접한 훌륭한 하나의 예이다. 주인공은 심리학과 환경에 의해 그랬던 것처럼 그림에 의해서 이 두 개는 동시에 매스컴 매체에 의해 변화되었다.

종이에 그리는 만화가들은 U. B. 렉스, 그 다음은 플로이드 고트프레드슨이었다. 그들은 영화처럼 살아있듯이 완벽하게 그려 이 시리즈물을 성공시켰으며 그 성공은 변하지 않고 이어졌다.

## 11. 1930년 영화와 만화의 영감

존 테리의 <스코시 스미스>는 린드버그의 수훈에서 영감을 얻어 영웅적인 비행사의 모험을 그렸고 브론코 빌은 만화에 헤리 어프 오넬의 서부의 영 버팔로 빌을 채택했다.

KFS 사의 에드 베르디에 의해 창간된 <작은 애니>는 1930년 다렐 맥클뤼에 의해 재판되었고 영화는 만화만큼 성숙해갔으며 30년은 렌느 디트리쉬가 출판한 조세프 본 스테르베르그의 <파란 천사>의 에로티즘과 사회풍자, 아벨 간스의 공상과학소설 <세상 끝>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경향의 출현으로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해가 되었다. 사람들은 시 <피>를 콕또가 최초로 영화로 만든데 대해 열광했으며 다쉬엘 햄메트는 <말테 섬의 매>을 썼다. 이것은 최고의 신참 경찰을 그린 것으로 영화와 만화에 영감을 주었다.

## 12. 1931년 시리즈물 세상

<작은 왕>은 KFS 사의 오토 소글루에 의해 1931년부터 1975년까지 그려져 매우 미식가이고 동글동글한 이 왕은 흰 담비털 망토로 그의 커다란 배를 가리고 우뚝 솟은 왕관과 갈고리 모양의 콧수염으로 위엄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사 없이 개그만으로 구성된 시리즈물이다. 이것은 특히 《파리마치》에 의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다. 프랑스 만화가 마리악은 《군센 기슴》지에 서부의 영웅인 <짐 붐>을 출판한다. 2차 세계대전시 ‘짐 붐’이라고 이름붙은 작은 딸은 이 시리즈물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비행사의 주인공으로 코크 하디에서 그려진다.

뮤직홀은 영광으로 가득 찬다. 모리스 쉬발리에에는 영화 스타가 되고 조세핀 베이커는 파리의 카지 오에서 분노하고 뷔스터 케톤은 오페레타에 출현한다.

### 13. 1932년 경제공황

미국인 마르타 오르지는 경제공황으로 길거리에서 사과를 파는 이로 전락해버린 늙은 부인 매리의 환멸을 그린 <애플 매리>를 그린다. 조금씩 그녀는 성격이 좋지 않아지고 이야기는 감상적이고 친근한 중세 아이슬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이나 영웅담은 사가 쪽으로 발전해간다. 이 만화는 1940년후에 매리 윌스 가의 가족으로 변하고 그림 스타일은 근대화된다.

잔은 《데일리 미러》지 때문에 <노르만 페디>를 그린 매혹적인 영국인이다. 매우 섹시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그녀는 직업과 감정면에서 모든 종류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14. 1933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원숭이 얼굴을 한 악당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 얼굴을 한 악당 거인이 미국 신문에 출판된다. 그것이 빈센트 티 햄林的 <알레이 오프>이다. 그것은 영화와 관련해서 조잡한 상황이었던 영화에 있어서 선사시대에 위치한 상황에서 볼 때 미친 듯한 만화였다. 왜냐하면 그때는 맥세네트의 익살스러움을 영화화 할 때였기 때문이다.

《KFS》지에 의해 칼 안데르슨에 의해 헨리가 탄생한다. 그것은 《새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에서 출간되었던 뽀뽀머리에 포동포동한 소년을 연출해놓은 것으로 매우 시각적인 개그의 시리즈물이다.

W. 리트와 C. 그레이의 모험과 공상과학소설을 섞어놓은 시리즈물 <브릭 브래드포드>는 1948년 콜롬비아사에서 15개의 필름으로 시리즈물을 찍을 만큼 독자들이 열광했다.

프랑스인 마리스티드 페레는 뽀뽀이의 동반자 올리브를 떠올리게 하는 실루엣을 가진 영악하고 재미있는 <젊은 소녀 뿌세뜨>를 그린다.

<스밀린 잭>은 클락 케이블에게 멋진 콧수염을 준 호색가이면서 용감한 파일럿이다. KFS사의 잭 모슬레이에 의해 출판된 이 시리즈물은 미국에서 TV의 연속극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호화찬란한 경력을 가진 만화이다.

미국에서 <카툰>지의 제작은 계속되었다. 전쟁 전에 태어난 수많은 수의 주인공들은 장 드브룬 호프의 바바르처럼 최고의 창작물로서 다른 기록물 속에서 좋은 상태로 실현되었다.

그래서 30년대 초에 동물만화로 유명한 주인공 포키 피그가 있었다. 포키 피그는 몇 년 뒤에 그만의 고유한 그림을 갖게 되고 티티와 그로스미네를 동반하고 나온다. 이 주인공들 모두는 잡지와 수많은 시리즈물에 영감을 주었다.



## 15. 1934년 모든 분야에서의 모험

영화에서 관객은 행동과 움직임이면서 행해지는 모험에 맛을 들었다. 만화가들은 많은 영감을 받게 한 시리즈물들이 탄생하도록 한 이 영감을 이용한다. KFS는 알렉스 레이몽드가 경영한다. 그의 임무는 독창적인 작품을 출간하고 디 트레이시또는 벅 로저처럼 경쟁하에서 출간되는 시리즈물의 인기와 경쟁하도록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급격히 계속되는 성공을 이끈다. 천재 화가 알렉스 레이몽드는 차례차례로 <플래쉬 고든> <정글 짐> <비밀경찰 X9> 이 세 편의 훌륭한 시리즈물을 내놓는다.

플래쉬 고든은 완전히 상상 속의 화려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은하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사시를 그린 것이다. ‘정글 짐’이라고 명명되는 짐 브래들리는 대주의 관심 속에 있는 타잔과 경쟁이 되지 않을 만큼 무모한 맹수 사냥꾼이다.

알렉스 레이몽드는 예외적으로 노와르 소설의 대가 다쉬엘 햄메, 생의 만화가이자 작가인 레슬리 샤프테리간은 시나리오 작가들을 고용했다. 그래서 그의 만화는 가장 잘된 그림이 되었다.

## 16. 1935년 고전주의 시대

새로운 주인공 테리와 만드라코로 주일에 출간되는 신문들은 독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아직도 이 두 개의 만화 시리즈물은 걸작으로 꼽힌다. 밀톤 카니프의 테리와 피라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국 취향, 우월한 여성, 몹시 무서운 배신자는 대성공을 약속하고 있었다. 이 시리즈물은 전쟁전의 모든 만화들이 완벽하게 그렸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완벽함을 간직한 재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었다. 우선 이 대단한 젊은 소년의 모험은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출판되었고 1940년에 TV연속극에 방영될 만큼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세심함과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성공한 이 두 개의 시리즈물은 학파를 형성한다.

1934년 10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다.

<신문 《미키》지가 발간된다>

직감으로 가득찬 신문기자 폴 윈클레는 미국으로 다시 온다. 그는 디즈니 사 주인공들의 공식적인 대표자이며 KFS 사의 대리인으로써 프랑스에 머물렀다. 아직 대부분의 만화들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특징을 가진 만화를 프랑스 대중들에게 보여줬다. 너무 비싸지 않지만 커다란 힘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미키》지는 50만 부가 넘는 신문을 팔 만큼 가치가 높아졌다. 이 때가 프랑스의 편집장들 사이에서 ‘만화의 황금기’라고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시기이다.

이때는 용감하고 힘이 센 주인공을 표현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브릭 브래드포드가(w. 리트와 C.그레이가 그린) 1934년 신문의 주일판에 등장한다.

프랑스에서(특히 전쟁 후에 스피루와 프랑수아지에 여러 번 다시 출판되었던) <뤽 그라드페르>라고 다시 명명된 이 만화는 근육과 힘으로 판단될 만큼 이 이름을 붙일 가치가 있다. 금발에 키가 크고 힘이 센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감격시킨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의 의지대로 변화해야하기 때문에 그가 수훈을 세우는 것을 방해한다.

## 17. 1934 익살스런 만화의 등장

프랑스 작가 앙드레 데스가 그린 대머리에 작은 키를 가진 엉뚱한 선생님 ‘넘버스’는 폴 윙클레가 경영하는 신문 《오페라 명디》 신문사 때문에 알려진다. 이 주인공은 오늘날에서 지능적으로 멍청한 사람을 <넘버스 선생>이라고 부를 만큼 프랑스인의 정신 속에 들어온다.

KFS 사는 경찰이라는 영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미국인 윌 굴드는 <레드 배리>를 그린다. 이야기의 전개는 금발의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잘생긴 레드 배리 경찰이 수상한 악당 두목을 쫓는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진다. 조조는 투레 편집사에 의해 벨기에에서 출판된 어린이가 놀 때 입는 옷을 입은 윈송이의 익살을 그린 것이다. 너무 단순화한 그림으로 그린 이 만화는 전쟁을 전후하여 앨범으로 발행되었다.

## 18. 1935년 개그 만화

알랭 뒀이 그린 <세정 킨 어브 더 로얄 마운티드(르 르와 들 라 폴리스 몽테)>는 미국에서 매주마다 출판되기 시작한다. 프랑스에서는 ‘환호와 모험’ 속에 발행된 이 만화 역시 대성공을 거두었다. 쿼또는 에스파냐 만화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주인공 중의 하나이다. 마녀하 제쥬 브라스코는 겨우 15살이었다. 《오페라 명디》사의 프랑스인 보츠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외알박이 안경에 증절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은 이 주인공은 그 시대에 뚜르 몽드 씨를 구체화한 것이다.

스모키 스토퍼(포폴 르 폼페르)는 사건을 일으키는 실수를 하는 경솔한 사람이다. 그는 즐거움을 깨뜨리고 미친듯한 상상을 하는 만화가(《시카고 트리뷴》지의 빌 홀만)는 개그가 들어간 만화를 그린다.

## 19. 1936년 시리즈물의 축 형성

이제부터 미국의 시리즈물들은 무조건 가족이나 사회를 그리거나 아니면 미스터리물이나 서스펜스물을 그리는 거대한 두 개의 축을 형성한다. 가족, 부부 그리고 연애라는 것은 오랫동안 익살스러운 이야기 주제로 이용되었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이 주제에 열광한다. 물론 어떤 독자들은 모험물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러나 1920년대에 발간되어 성공한 만화들은 화려한 경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새로운 만화가 1934년 8월 출판된다. 그것이 <릴 마네르 달 캡>이다. 작가가 신랄한 조롱을

섞어서 매우 못생기거나 매우 잘생긴 인물들의 얼굴모습을 커리커처로 그린 이 시리즈물은 두 명의 반대되는 테네세의 이웃들을 비교한다. 하나는 기분이 쉽게 상하고 항상 조심성 있는 사람들로 이웃에 사는 도파츠가 있다. 그곳이 항상 주위 사람들 특히 요콧의 아빠와 엄마에 의해서 교활한 속임수에 항상 싸워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콧 가족의 호감하는 아들 릴 압네르가 사는 곳이다. 두 개의 언덕은 밀리마르데르 도시 안의 슬로보비아에 세워져있다. 미국인들에 먹혀들어간 이 풍자 시리즈는 알 캡의 화법으로 197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영화, TV, 연극에 영향을 주었다.

1936년 2월은 벨갈 정글에서 사법관으로 근무하는 슈퍼 영웅을 그린 만화 <팡툼>이 처음으로 출판되어 두드러지는 해이다. 만드라크처럼 이 만화들은 레이 모레가 그렸고 시나리오는 리 팔크가 썼다. 데빌이라는 개와 함께 사는 팜툼은 동굴에서 살며 그의 친구 특히 피그네방다를 보호한다. 검은 가면에 망토를 입은 그는 죽음을 뜻하는 싸인을 남기면서 온갖 종류의 해로운 것들을 추적한다. 그는 약혼을 하고 매력적이고 게다가 수영 챔피언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 KFS 사에 의해 발행된 이 시리즈물은 그의 정교함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만화는 서스펜스와 행동만으로도 독자들에게 특히나 이 시리즈물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유럽의 독자들에게 열정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이탈리아에서 이 만화는 <우모 마셀라토>로 번역되었고 에피소드들은 이탈리아의 작가들에 의해서 덧붙여져졌다. 게다가 젊은이를 위한 삽화 그림들은 프랑스에서 그것은 거의 20년 동안 그의 모험담을 발행해 내면서 주인공의 명성이 확고해진 <오로르>라는 만화로 번역되었다.

## 20. 1937년 <코믹 형사 넘버1>

1937년 3월 처음으로 <코믹 형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신문사의 거대한 조합들은 《스트립》지에 만화를 발간하려는 면을 남겨두거나 더 좋은 방법으로는 주일 신문의 부록으로 예약을 해놓는 것이다. 《페이머스 퍼니》(1934) 또는 《킹 코믹》(1936) 같은 싸게 파는 하찮은 몇몇의 잡지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이미 신문에 발간되었던 만화들을 합쳐서 내고있는 것이다.

내셔널 페리오디컬 퍼블리케이션 사의 <코믹 형사 넘버 1>은 (항상 DC라는 약자를 사용했다) 17×16 사이즈의 포켓판으로 잡지의 특질에 맞는 적절한 가격과 복잡한 줄거리가 있는 매춘부의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양을 인쇄할 만큼 혁신적이었다. 1년 뒤에 <슈퍼맨>을 발간한 같은 출판사에서 액션 코믹 1편을 출간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연적으로 <마르벨 코믹>을 발간한다.

경쟁하는 새로운 제목들에 독자들은 모든 스타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 두 개의 만화들은 새로운 주인공의 탄생에 때로는 이미 유명해진 《카툰》지에 나온 시리즈물들의 복잡한 이야기로 다시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일치시키기도 한다. 이 해에 미국에서 팔린 모든 종류의 만화들이 있는 《코믹》지가 이 해에 미국에서 팔린 부수는 어마어마하게도 1톤도 넘는 종이에 인쇄를 했다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프린스 발리언트>는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판화로 출판되다가 독자들의 요구로 KFS 사의 일요 신문의 한 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색깔로 만화를 고급스럽게 인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간지 《스트립》지에는 결코 발행되지 않았다.

이 만화의 이야기는 원탁의 기사 시대에서 전개된다. 텍스트와 그림은 만화 타잔의 만화가 하롤드 포스터가 그렸다. 이 만화는 독자들이 하여금 정신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행을 하게 했으며 시적으로 명확하고 풍부한 감성을 그려졌다. 인물들은 힘이 세고, 씩씩하고, 과감하다. 이들은 초인이 아니라 젊은 소년들이 꿈꾸는 용감하고 지적인 인간들이었다. 매우 반응이 좋았던 이 시리즈물은 프랑스에서 특히 신문 《미키》지와 여러 군데의 출판사에서 앨범으로 출간되었다.

## 21. 1936년 현실적인 시리즈물의 발간

바네이 바스터는 비행으로 젊은 영웅이 되었다. 불이 통통한 모습이지만 대담한 그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는 기술자 귀스는 그와는 뿔 수 없는 조수로 전쟁 중인 1941년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매우 현실적인 그림의 이 시리즈물은 KFS 사의 프랭크 밀러에 의해 발간된다.

헤르게에 의해 그려진 가장 어린 어린이는 위한 만화 <조, 제트와 조코>는 프랑스의 피GM바일링사에서 출판되다가 벨기에의 르 뿌띠 뱅띠엠프에서 출판된다. 헤르게에 의해 버려진 이 시리즈물은 1955년 그의 만화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이다.

쉬를리(...). 필레프 사의 프랑세 르네 기페이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전쟁 전에 미국 영화 쉬를리 텅플에서 금 팔찌를 하고 발랄한 얼굴을 한 천사의 작은 여주인공을 만화로 각색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위니 윙클도 성공을 거둔다. 네덜란드에서 ‘소조르’로 불렸던 <작은 페리>는 프랑스에서 ‘비코트’가 된다. 소조르는 그의 모험을 계속해서 그린 만화가 프랑스 페에트가 있는 네덜란드의 진정한 네덜란드인이 된다.

## 22. 1937년 유럽 만화가들의 분산

유럽의 만화가들은 산산이 흩어진다. 영국에서 신문 《데일리 미러》지는 25년 동안이나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책 몬크가 그린 <사설형사 벅 리언의 모험>을 출판한다. 이탈리아에서 페데리코 페드로치와 기오바니 스콜라리는 유럽에서 SF만화의 고전이 되는 <사트르노 콘트로 라 테라>의 연재를 시작한다. 덴마크에서는 미케가 그린 코밀 수염을 기르고 종 모양의 모자를 쓴 뚱뚱한 <페르 단느>가 망설임없이 일간지에 연재된다. 아비 언 슬라츠는 내편을 묘사해서 성공한 경우로 이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 이미 잘 정돈되어 있어서 성공할 줄 알았던 시리즈물이다.

## 23. 1938년 남성적이고 근육질의 세상

미국에 가속이 붙은 진보와 증가된 새로운 단계가 스며든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미국은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코믹》지의 주인공들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액션 코믹 넘버1에 조 쉬스터가 그리고 제리 씨에젤이 각본을 쓴 슈퍼맨의 데뷔이다. 이야기는 필립 윌 리가 쓴 새로운 공상과학소설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지구 밖의 크립톤 행성에서 태어나서 인간 중에서도 덩치가 크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똑똑한 아이이다.

소심하고 신중하지만 학대당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청할 때 죄를 응징하는 자로 변신하여 도와주기 위해 날아가는 매력있는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단호하고 잘생긴 얼굴, 근육질의 몸매, 지식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지적이고 소심하다는 것보다도 더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1939년 3월 《슈퍼맨》 잡지 1권이 발간된다. 그것은 40년 동안 존재했고, 총 18만 부 이상이 팔렸다. 시나리오 작가와 만화가들은 오직 슈퍼맨을 위해 일했다. 그것은 전세계에서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레드 라이더로 술집과 대목장이 있는 카우보이의 남성적인 세상이 몰려온다. 19세기 서부의 대농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만화에 그려진 서부는 새로운 장르였고 이것은 1960년대까지 만화가 프레드 하펜을 성공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만화는 텔레비전 시리즈물로 방영이 되었고 프랑스처럼 미국 전역에 배포되었다. 확실하게 살아있는 기록이 된 이 만화는 제리 스피링을 그린 <지제>와 같은 미래의 만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말 가면을 쓴 재판관, 카우보이의 서사적인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라디오 방송의 연속극인 <스트릭커>와 크레시의 <로안 레인저>가 KTS 사에 의해 만화로 채택된다. 이것이 <코믹 북>의 기원이 되며 3번 영화로 만들어지고 텔레비전 시리즈물로 만들어진다.

소설가 얼 디어 비거의 손 끝에서 태어난 <중국 경찰 찰리 창>은 워너의 보호아래 이미 영화화되었던 것으로 알프레드 안드리올라에 의해 만화로 만들어진다. 주인공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사하는 중절모자를 쓴 영리한 동양인인 호감이 가고 만족스러운 이 시리즈는 미국과 일본 전쟁이 터졌을 때 연재를 중단했다. 왜냐하면 법으로 동양인이 주인공인 만화를 독자에게 연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쟁 후에 시리즈는 다시 연재되었다.

## 24. 1939년 슈퍼 영웅, 슈퍼 코믹

슈퍼 영웅은 만화가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경쟁사보다도 더 특별한 만화를 그리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다. 슈퍼맨 후에 나타난 것이 배트맨이다. 빌 핑거가 텍스트를 쓰고, 밥 칸스가 그린

<배트맨>은 <코믹 형사> 27권 속에서 처음으로 연재되었다. 이상하게도 뉴욕과 님은 고담 시는 눈에 띄었다. 조금씩 초초하게 발간을 기다리는 다수의 팬이 확보되면서 배트맨은 확장 연재되고 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방탕하고 악의적인 조커, 펑귄, 그림 독토또는 투페이스와 같이 사나운 주변환경으로부터 가면을 쓴 재판관이 되어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바쁘게 일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빈처럼 절친한 친구와 배트걸, 캣우먼과 같은 예측불능이고 매력으로 사람을 홀리는 여성들도 나타난다. 미적이고, 지략이 뛰어나고, 지성적인 이 만화는 다음해에 배트맨이라는 자신만의 <코믹 북>을 출판하는 성공을 알려준다. 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의 주변의 스타들도 더불어 파생된 조트까지 발전된 배트맨은 미키와 거의 경쟁자가 된다.

## 25. 1938년 프랑스-벨기에 학파의 발전

듀피 출판사에서 1943년에 팔린 《모브-벨》지에서 대단한 상상을 펼친 <시피루지의 탄생>이 하나의 사건이었다. 페르나드 디뇌르의 티푸와 통튀는 익살맞고 엉뚱한 인물들이다. 티푸는 대머리에 조금 거짓으로 우는 사람이고 통튀는 수염이 있고 머리가 길고 더 역동적이다. 같은 흐름에서 지체는 계속해서 용감한 두 명의 소년 <금발 블론딘과 검은 머리 시라제의 모험>을 출판한다. 결국 1937년까지 이부 게르비가 출판한 <파트 마푸르 형사>가 필르린의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네덜란드에서 <사랑스러운 하얀 고양이>가 성공적인 경력을 시작한다. 이것이 성공한 동물 만화인 시리즈물의 흐름 중에 있는 주인공이며 여러 나라의 잡지에서 고유한 자리를 차지한 <툼 포에스>이다. 이탈리아에서 <바리올리>와 코썬의 종교시리즈물인 <디 폴민니>는 악인을 뒤쫓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거인의 모험을 그린다.

<로마노 일 레기오마로>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으로 젊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한다. 왜냐하면 조금은 방어적인 원인과 힘을 섞은 파시즘 속에서 잃어버린 집단을 그린다.

## 26. 1939년 다니엘 라보른 창간

프랑스에서 라리플레트는 《르 삐띠 파리지엔》에서 <다니엘 라보른>을 창간한다. 12,000시퀀스로 구성된 이 만화에는 여섯 명의 아이들과 부인 비쉴트를 부양하는 가정의 용감한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1939년 9월 첫 호가 매우 많이 판매된 <마르벨 코믹>의 경쟁지 <코믹 북> 제1권이 출판된다. 이것이 두 개의 서스펜스 시리즈물 휴먼 투취와 썬브-마리네라의 데뷔이다. 과감한 성향이 출판을 하게 한 원인이다. 액션과 공포가 가득찬 이 시리즈물은 독자들의 열광적인 대접을 받게 되고 조금씩 편집자들은 값을 올렸다. 몇 해 후에 견해와 힘으로 독자들이 들끓을 만큼 폭력과 공포로 <코믹>북

안에 절정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신문 《스피루》지가 탄생한다. 미국식 만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 후에 자신만의 고유한 신분을 가지게 된다.

## 27. 1940-1949년 만화가들이 동원되다

유럽을 파괴한 전투의 목격자들인 미국인들은 만화의 새로운 주인공들에 열광하면서 전쟁초기의 절박한 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것은 초인적인 힘으로 악당과 싸우면서 그들을 도와 견뎌내줄 <슈퍼 영웅>이었다. 슈퍼맨, 배트맨 이후에 <캡틴 아메리카>와 <원더 우먼>은 선과 악의 싸움과 정의와 힘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이것은 그림이 들어간 이야기 형태의 새로운 선구자가 되었다. 유럽이 당한 전쟁과 점령은 만화라는 작품에 큰 발전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와 같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식 시리즈물로 하나의 탄탄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잡지들은 미국의 침략에 통상금지로 대항했다. 출판사들은 전과 달라진 오리지널 주인공들을 좀더 발전시키고 재구성한 세계적인 만화가들을 불러들였다. 점령의 치하에서 신물들은 모든 종류의 억압과 검열에 시달려야만 했다. 전쟁 끝 무렵부터 독자들은 많은 만화가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재건하려는 도약의 흐름 속에서 작품의 역동성은 특히 벨기에에서 일기 시작했다. 벨기에는 만화의 두 개의 유명한 중심축이 출현한다. 첫번째가 프랑켄, 지제 등과 같은 만화를 그린 만화가들로 구성되어 신문 《스피루》지를 만든 샤를르와 학파이다. 두번째 축은 땡땡지와 헤르계와 블랙과 모티메르의 만화가인 E. P. 재크와 알릭스의 미래의 아빠 재크 마틴과 같이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만화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쿠룩셀 학파이다. 이 두 그룹은 독자들에게 양질의 시리즈물들을 제공하였고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젊은 베네치아인 위고 프라트가 잡지 《라쏘 디 피쉬》를 출판한다. 프랑스에서는 마리작, 바이영의 코크 하르디가 공상당과 연합하고 카톨릭교 편집장 플뤼루와 본느 프레스는 시장을 공유한다. 작품의 많음과 다양성은 독자들을 성장하게 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은 그때까지 모든 통제에 갈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 28. 1940년 만화 속 영웅들과의 동일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만화 속의 슈퍼 영웅들과 동일시되어진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무시할 수 없었다. 만화의 주인공들은 ‘대리로’ 그들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존재였다.

월 에이스너는 풍부한 모험정신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주인공을 발표한다. 주인공의 행동은 독자들에게 폭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후배 만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더 스피리트>는 칼라로 인쇄되어 부록 형식으로 미국의 주요 일간지와 주간지에 발간되었다. 반대로 슈퍼 영웅은

초인적인 힘도 눈속임도 없고 폭발적인 아이디어도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제니 콜트’라고 불렀다. 그가 ‘스피리트’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상은 늑대의 가면을 쓰는 것이다. 젊고 매력적인 그는 일상적인 뉴욕커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그려진다. 개개의 미국인은 호감가는 이 주인공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그는 동물적인 시선에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운명적인 여성과 마주친다. 만화의 처음의 모험에서 그는 자주 스파이 또는 파괴하는 자인 독일 군인의 악당 같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초적인 상황 속에서 독자들에 대해 이러한 방법으로 대신해서 독일군 군인들과 싸우는 역할을 대신했다.

다른 모습의 두 명의 주인공들이 만화의 세계에 등장한다. 그들은 남성이라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만큼 능력있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만화가 달 메식이 그린 <브렌다 스타>는 감상적인 편견을 잊게 할 만큼 파란만장한 모험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행동파 여성이다. 이것이 여자가 주인공이고 여성에 의해 그려진 여성의 세계를 열어준 만화이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극복하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흥미있는 이야기이다.

## 29. 1941년 슈퍼 영웅은 전쟁 시작을 준비한다

많은 출판물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악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특별한 힘을 가진 해로운 주인공을 출판한다. 분명치 않은 슈퍼 영웅은 미국인의 잡지를 점령한다. 1930년대 말 슈퍼 영웅은 배트맨과 슈퍼맨이었다. 전쟁 초기인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 영웅에 매우 전념한다. 또한 일본과 독일의 오리지널 만화 주인공 또는 스파이와 싸우고 대결할 만한 주인공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투쟁에 앞서서 사람들은 미국 영웅의 화려한 성공을 보면서 슈퍼 영웅을 중개로 해서 잠재적인 전쟁의 성공을 주장한다. 이 이야기로 한해 만화가들은 전쟁에 임박하여 개인의 근심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 만화의 새로운 주인공 중에는 방패와 미국 국기를 칼라로 입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있다. 평범한 남자로서 있다가 ‘짜잠’이라는 주문을 외울 때 그는 슈퍼 영웅이 된다.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플래쉬, 스탠 리에 의해 1960년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다레드빌, 벵갈 숲의 재판관 판툼, 날라다니는 재판관 후크맨이 있다. 이 인물들은 전쟁 후에 대중 잡지에 많은 부수가 인쇄되어 출판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다.

## 30. 1940년 다수의 시리즈물의 탄생

미국의 슈퍼 영웅의 공허한 만화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다수의 시리즈물을 탄생시킨다.

또한 독자는 B. 오코너와 벤 플린톤의 <아툼>을 다수로 결정한다. 그것이 눈에 띄는 근육과 힘이 있는 손목, 파란 망토와 복면을 입은 슈퍼 영웅이다. 간신히 그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그는



조롱을 면한다. 캡틴 마르벨은 《위즈》 코믹 잡지 속에서 처음의 탐험을 시작한다.

미국이 근원지인 만화에 의해 신문이 침입당하는 것을 종결짓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정부는 7월부터 발행을 금지하며 프랑스에서는 《미키》 《로빈슨》 《캐르 바이언》 《암스 바이영트》와 같은 다수의 잡지들은 자유로운 지역으로 피난한다. 다른 잡지들은 그 자체 또는 독일은 검역의 억압 아래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대중문학의 주인공 새도우는 밥 포웰과 조 올란도가 그림을 그린 만화가 처음으로 출판된다.

### 31. 1941년 화려한 시리즈물

마르셀 퀴빌리에의 실베과 실베뜨의 주인공을 그리며 린노 알베르타렐리는 화려한 일 도프트 포스트를 감독한다. 이 시리즈물의 만화는 화려했고 매혹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신문 《스피루》지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형사 활동을 하는 도이시와 지제의 인물 장 발하르 디에 페이지를 열고, 진주만의 공격 후에 미국은 10월에 전쟁을 시작한다.

### 32. 1942년 전쟁중인 유럽

출판과 만화의 세계에도 전쟁의 무게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많은 작품들은 전쟁과 관련있다는 이유 때문에 중지되었다. 검열의 대상, 종이의 부족, 배달만 되는 미국식 시리즈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작력이 일하는 속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독일은 엄격한 검열을 단행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침입자들은 지역의 광고를 반독일주의에 대한 선전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킨다. 프랑스에서 타잔, 로다시유, 라병튀회, 주니어, 피에로, 리쉴트, 필레뜨 등과 같은 만화의 주인공들이 나타난다. 그것들은 종종 선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만화 속의 주인공들은 몇 년 후부터 대중의 신문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 신문이 《로마노 일 레지오마리오》이고 무솔리니의 계산에 의해 대단한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프랑스에서도 《르 테메레르 에 팡팡 마 툴리프》와 같은 새로운 잡지들이 출판된다. 이 잡지는 정복자들에 의해 완전히 조절되어졌고 모든 시나리오와 그림은 나치주의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

### 33. 1943년 만화에 대한 통상금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에 유럽의 만화는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한다.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에 독일군에 의해 선포된 통상금지는 미국 영토와 정령된 나라 사이의 모든 무역을 방해했다. 미국 조합에서 만화잡지를 사오기 때문에 붙는 과도한 세율 때문에 만화잡지

에 문제가 발생했다. 편집장 혼자서 미국의 시리즈물들을 인쇄만 해서 내보내던 편집장들은 외국 만화의 주인공들의 모험담을 계속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만화 주인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의 만화가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프랑스-벨기에 화파를 만들게 할 만큼 만화의 발전에 공헌을 한다. 이 시대의 초창기에 나온 것 중에서 두드러지는 시리즈물은 만화가 E. P. 자콥스와 벨기에의 시리어스에 의해 그려진 ‘블랙 그리고 모르티메’라고 불리는 <레페르비에 블루>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시민전쟁을 잊으려고 애쓰면서 만드는 에스파냐의 중요한 국가적 작품을 도와준다. 이 같은 흥분 속에서 가면 쓴 영웅 알리아스 엘 코이오트, 동 세자르 드 예사그라는 만화 주인공이 탄생하게 된다. 엘 코이오트 잡지가 창간되었고 저렴한 가격과 주인공에 대한 즉각적인 인기의 지속으로 대단한 성공을 짐작한다.

만화 속의 주인공들이 텔레비전의 스타가 되기 시작한다.

동물 만화의 두 명의 주인공들이 유행한다. 첫번째가 벅스 버니이다. 엘머라는 천덕꾸러기랑 같이 다니는 버니는 미국 일간지의 한 면을 차지하며 발행되었다. 두번째가 현재 자신만의 고유한 잡지를 가지고 있는 도날드 덕이다. 이 유명한 오리는 1934년 월트디즈니 사의 스튜디오에서 창조되었다. 이야기는 1938년까지 만화 속에서 매일 발간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영웅대접을 받으며 화려한 경력을 가지기 시작한다. 같은 시대에 만화의 많은 주인공들이 영화와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모험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의 예를 들면 알캅에 의해 1934년에 발간된 <릴 압네르>가 그 경우이다. 이것은 RKO 사의 그랑빌 오웬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주인공이다. 망드라케, 플래쉬 고든, 르 팡툼 등과 같은 많은 시리즈물의 주인공들이 영화화되어 텔레비전에 방영되기 시작한다. 현재 만화는 잘 알려진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우상과 신화는 공동의 문화에 동화된 부분이다.

#### 34. 1942년 사립 탐정의 이야기

아시아인인 사립 탐정의 이야기를 영상화한 미국의 대단한 시리즈물인 알프레드 안드리올라의 <찰리 장>이 사라진다. 미국의 전쟁 초창기부터 범은 좋은 날의 광고에 나타나는 동양인이 주인공이 되는 만화를 금지시켰다. 알 캅은 시리즈물 속에 주인공이 계속해서 모험담을 설명해주고 상황을 살리는 형사의 운명인 피어레스 포스닥이라는 인물로 <릴 압네르>를 탄생시킨다.

#### 35. 1943년 독창적인 이야기의 등장

<로이 크랜느>의 주인공 버즈 쏘이어는 미국인 비행기 저격수이다. 일간지에 발행된 이 모험담은 성공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전쟁을 배경으로 삼았다. <데일리 미러>지는 가트라고

명명되는 선전에 힘입어 한 페이지 속에 거인을 들여놓는다. 만화가의 영감에 힘입어 영국인 스테판 도올링은 파란만장하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신문 《테메레르》지에 만화가 에릭은 눈에 띄어 그림의 특질과 혈기를 가진 의사 플뤼미나트와 보락 선생을 그린다. 에릭의 창작력에도 불구하고 점령자의 사상에 복종하면서 신문에 그림을 그려야 만했다. 그의 시리즈물은 불행하게도 독일주의를 지지하고 반 유대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찰리 장>을 포기해야 할 만큼 강제적이니 여름이 지난 후에 알프레드 안드리올라는 ‘케리 드레이크’라고 불리는 호감가는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다시 그린다.

### 36. 1944년 에너지가 발산된다.

유럽에서 독일군의 힘이 쇠퇴해가면서 창작의 커다란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다.

알리에의 억압 아래에서 점령당한 나라들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종이의 부족과 식량 난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이고 과감한 창작력은 유럽인의 만화에 새로운 광경을 만들게 한다. 그래서 마리작, 알리아 작브 듀마스는 클레르몽-페랑에서 《코크 아르디》 첫호를 발간한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주간신문으로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적으로 스스로 발간된 것이었다. 첫호의 성공부터 신문은 《코코리코》, 서부의 잡지 《미레이오》 《르리무스》 《마노와 마네프》 같은 다수의 잡지들이 출판된다.

벨기에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신문 《휠》의 탄생을 돕는다. 이것은 프랑스와 벨기에 만화가들이 모험담을 쓴 것으로 어른들에게도 권하는 신문이다. 《에로이크 앨범》이 19세의 젊은 만화가 세느 발에 의해 창간되었고 외국의 시리즈물을 리메이크한 스토리와 어린 소녀들을 위한 잡지 《아네프》가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젊은 베네치아인들이 결성한 <라쏘 디 피쉬>가 출간된다. 이것은 포스티넬리와 옹가로에 의해 주인공이 탄생했고, 후고 프라트가 그림을 그렸다.

《시피루》지는 세계적으로 오리지널 판만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물만을 발간하는 것으로 하나의 특질을 가진다. 벨기에에서는 1938년부터 발간되어 이미 유명 신문인 《시피루》지는 만화가 지제의 추진력에 의해 변신한다. 원래 잡지들은 미국에서 비싼 가격에 사온 미국의 시리즈물로 좋은 부분을 잠식당한 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쟁하는 동안 《시피루》지는 점령자들의 검열에 희생되었었다. 편집이 조금씩 새로운 주인공과 재능있는 벨기에의 만화가들에 의해서 자유로워졌다. 자유로 인해 잡지들은 자국의 만화작품들만을 실은 새로운 형식의 잡지들을 출간한다. 판다시오와 시뮈처럼 디너르의 티푸와 통 뒤, 베페르비에 블루, 시리어스의 카라멜과 로필루스 지제에 의해 그려진 모험담들의 주인공이 한 면에서 모두 볼 수 있었다. 이 신문은 독창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샤를루아 학파라고 불리는 만화창작의 스타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영을 받았고 그 시대에 두드러지

는 다수의 예술가들을 형성하였다.

### Ⅲ. 결론

인간이 사람들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한 인간의 사고의 산물인 만화는 인간과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만화는 유머와 우스꽝스러운 재미를 추구하는 동시에, 시대상을 반영하고 민중의 바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가들에게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기도 하는 비평적인 매체로서 자리매김했다.

또한 만화는 중요한 재정적 후원자를 갖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만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만화는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돌아가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또한 만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만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영향력은 훨씬 광범위하고 놀랄 만한 것이었다. 정치가들은 풍자만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관습은 지금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작가들의 만화는 전 시대를 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하나의 기록이 된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인식과 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이 되고, 문화사에 대한 귀중한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만화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연구가 도외시 되어 왔다. 따라서 만화는 더욱 연구해 볼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장르라 하겠다.

동시에 《올 스타 코믹》의 여덟 번째 판 속에 나타난 <윈더 우먼>은 헤리 피터에 의해 그려지고 윌리엄 마스튼이 심리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며 대처하는 힘을 가졌다. 이 모험의 출판은 폭발적인 논쟁을 이끌어낸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조각 같은 미모를 가진이 젊은 여자가 그들이 좋아하는 영웅과 겨룰 수 있는 저항력이 없는 다수는 독자들이었다.